



신학적 관점에서 본 인간과 로봇의 창조¹

윤형(장신대)

1. 서론

로봇이란 낱말은 체코의 카렐 차페크(Karel Capek)가 1920년에 쓴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R.U.R.)’에 처음 나온다. 최근에 이 낱말이 인구에 더 회자되는 것을 주목하면 그는 거의 예언자에 가깝다. 당시에는 아직 로봇다운 로봇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개발하려는 그런 로봇을 상상하고 있었으니 말이다. 로봇이란 낱말의 의미는 체코어로 ‘고된 일을 하는 노동자’이다. 현재 사람들이 로봇을 제작하려는 가장 큰 이유도 인간의 힘든 노동을 그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차 산업 세계의 핵

1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88914).

심 기술은 인공지능(인간두뇌와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기계)인데, 나아가 이것을 장착한 유사인간(Humaine: Human+Machine)의 창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지능형 로봇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 인간은 실제로 다양한 노동활동에서 벗어날지도 모른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사실이 반갑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한다. 왜 그럴까? 노동을 내려놓으려 하면서도 막상 그것을 놓으려니 웬지 인간의 핵심가치를 상실한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봇이 본격적으로 다양한 일을 하기 시작한 이후도 문제다. 그들은 계속 고된 일을 할 것이고,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들이 세밀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호불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알고리즘도 개발될 것이다. 이에 로봇들도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나아가 학습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기들의 주인인 인간을 보는 관점도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즈음에 인간과 로봇에 대해 신학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인문학적으로 사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전에 인문학적인 토론을 통해 양자의 정체성을 보다 확실히 하게 된다면, 기계장치에 불과한 로봇에게 설정된 영역을 넘어서는 경계 침범 등 양자의 상호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침범으로 맨 앞에 나선 과학기술 한 분과에 이 과제에 대한 개발 및 책임을 모두 다 부과하기는 어렵다. 분명히 멀지 않은 미래에 이에 대한 신학적인 질문이 제기될 터인데, 따라서 이에 대한 신학적인 응답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선행 연구

본 논문은 사람의 삶에 있어 핵심 과제인 노동과 관련된 로봇 문제에 대

한 신학적인 탐구이다. 로봇이 사회에 등장하게 된 것은 노동과 그 관련성이 매우 깊다. 이에 인간과 노동 그리고 과학기술문제를 다룬 연구결과들을 살펴해보면서 본 논문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페티나토(G. Pettinato)는 ‘인간이 왜 창조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고대 오리엔트 세계의 전승들을 연구했다.² 거기서 사람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시켜 나가는 목적 지향적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다른 존재를 위한 노동 대행자로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는 신들이 직접 감당해야 했던 힘든 일을 그들로부터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상황으로 볼 때 신과 인간의 관계는 엄밀히 말해 차별적 주종관계인데, 이는 오늘날 인간과 로봇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인간 창조와 관련하여 베스터만(C. Westermann)은 바빌로니아 문서와 창세기 1장을 비교하며 ‘세계창조’가 두 문서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주장한다. 즉 전자에서는 인간창조의 주된 목적이 세계창조와 관계없이 신들을 섬기기 위한 것인데, 후자에서는 인간이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³ 로봇 또한 고차원적인 노동보다는 단순히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제작된다. 에바흐(J. Ebach)는 창세기와 고대 헬라세계의 노동에 대한 개념을 연구했다.⁴ 그는 원역사(창 1-11장)에 나타난 노동과 고대 오리엔트 세계의 노동을 비교하면서 노동이 처음에 어떻게 신들과 인간 사이에서 생겼는지 서술한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의 분리에 대한 것이다. 이에 그는 성서적 검토를 통해 그리스 철학에 나타난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노동과 안식이 함께 연결되어있으며 서로 배제할 수 없는 관계로 보는 성서적 견해와 대립되어있다고 주장한다.⁵ 이밖에 로봇과 관

2 G. Pettinato,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und die sumerischen und akkadischen Schöpfungsmythen* (Heidelberg: Carl Winter, 1971).

3 C. Westermann, *Genesis BK I/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⁴), 216.

4 J. Ebach, *Wententstehung und Kulturentwicklung bei Philo von Byblos* (Stuttgart: Kohlhammer, 1979).

5 J. Ebach, *Arbeit und Ruhe*, in: *Ursprung und Ziel*,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5), 90-110.

련하여 카렐 차페크가 쓴 희곡 R.U.R.(로숨의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문학작품이 있다.⁶ 그 작품 안에는 거의 안드로이드(android⁷/인간의 피부나 체모 그리고 동작 및 체형이 닮은 로봇) 수준의 로봇이 등장하는데 자체 내부 진화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 로봇의 제작 동기 또한 인간의 노동이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란 낱말이 어울리듯이 로봇이 인간을 넘보는 수준에 이르러 인간은 종말에 이르고 로봇의 후예에게 인간의 미래를 맡긴다. 어쨌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과 관련된 담론을 압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신학적인 측면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선 사례를 통해 보듯이 노동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미래 세계의 로봇은 우선 사람들이 이렇게 꺼려하는 힘든 육체노동을 대체하고 나아가 정신노동까지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논문은 로봇을 통한 노동 문제 해결이 인간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들과 차이점이 있다.

한편 변순용, 송선영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인간과 로봇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⁸ 그들은 로봇을 크게 세 가지 시각(기계, 도덕적 행위자, 새로운 종)에서 보면서 로봇 책임의 디자인 문제를 로봇기술 개발과정에서부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아직 기계에 불과하지만 향후 대두될 새로운 종으로서 로봇의 윤리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신선하다. 다만 이들의 주장

6 카렐 차페크,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R.U.R.)」 (김희숙 옮김), (서울: 모비딕, 2015). 원제는 Karel Capek, *Rossum's universal robots* (Prague: Aventinum, 1920). 차페크 또한 무표정한 모습으로 일하러 가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고 이 작품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로봇은 체코어 ‘robota’ (노동, 부역)에서 ‘a’를 빼고 만들어진 낱말이다.

7 이노우에 하루키, 「로봇 창세기」 (최경국, 이재준 옮김), (서울: 창해, 2019), 421. 원제는 Inoue Haruki, *Nihon Robot Souseiki 1920-1938* (Tokyo: NTT, 1993). 원래 안드로이드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이다. 안드로이드스(andro)는 남자, 에이데스(eidh)는 형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란 남성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인간과 같은 것, 그런 형태를 한 것’이라는 의미로 변형된 것이다.

8 변순용, 송선영, 「로봇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어문학사, 2015).

은 주로 사람의 입장에서 다루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인간 중심적 윤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로봇 문제를 좀 더 본질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진은 철학 분석의 관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의한 인공지능 개발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⁹ 논문에서 그는 인공지능에 의한 독립적 사고가 가능한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고, 지식 획득과 지향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부인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그는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영혼의 존재는 다른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인간의 사고 기능이 인공지능의 사고 기능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향후 전개될 강 인공지능은 이것을 넘어설 가능성을 갖고 있어 그의 연구는 한계에 도달한다. 그의 연구는 신경생물학과 철학적인 전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강 인공지능을 사용한 로봇을 상정하고 있어 그 점을 보완하고 있다. 나아가 본 논문은 보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을 장착한 로봇 제작과 관련된 노동, 격, 모방 문제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라이언 아벤트(Ryan Avent)는 디지털 혁명이 고용을 파괴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박탈하여 사람들을 실직자로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이에 따른 부의 재분배문제를 제기한다.¹⁰ 그러면서 기술 풍요의 세상에서 우리의 생활과 노동에 체계를 잡아주는 일에

9 최진, “인공지능(AI)과 *imago Dei*안의 의식과 지향성”, 『Canon & Culture』 10집 (2016년 가을), 69-90.

10 라이언 아벤트, 『노동의 미래』 (안진환 옮김), (서울: 민음사, 2018). 원제는 Ryan Avent, *The Wealth of Humans* (New York: St. Martin's Press: 2016).

수반되는 난제를 검토하고 해법을 조명한다. 그의 주장은 주로 기술-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반해 본 연구는 구약신학적인 입장에서 노동의 신성성을 통해 노동의 본질적인 가치를 주장함으로써 그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 밖에 김동환은 테크놀로지 시대의 인간에 대한 신학적 비평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¹¹ 이 글을 통해 그는 관계성과 생명, 그리고 육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첨단 테크놀로지 시대에 필요한 신학적 인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려 한다. 이에 그는 관계 및 육신의 신학적 패러다임의 정립이란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추상적인 담론이란 한계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필자는 인간의 현실적 과제인 노동을 중심으로 테크놀로지 시대의 핵심 기술인 로봇과 인간과의 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연구들은 신학, 문학, 윤리, 과학, 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인간과 노동 그리고 로봇의 문제를 개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인간과 로봇의 문제를 신학적 관점에서 특히 노동, 격, 모방이라는 세 개념을 중심으로 복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에서 그 독특성이 있다고 본다.

3. 본론

본론에서는 로봇과 인간창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고대와 현대 세계, 그리고 구약성서의 세 부문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노동(work), 인격(person)¹², 모방(mimesis)이라는 세 개의 개념을 중심으로

11 김동환, “테크놀로지 시대의 인간에 대한 신학적 비평”, 『Canon & Culture』 10집 (2016년 가을), 91-126.

12 진교훈 외, 『인격』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40. 이것은 원래 가면극의 가면을 의미하는 페

로 서술하고자 한다. 논문의 서술과정에서 필자는 구약성서의 최종 본문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정경적인 관점을 견지하면서, 고대 세계 및 구약성서의 인간 창조와 현대 세계의 로봇 문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고대 세계의 인간

우선 고대세계에서의 인간창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부분의 인간 창조는 다음 단락에서 다룰 로봇 제작과도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노동은 전자와 후자의 원인을 제공하는 공통분모이다. 왜냐하면 과거에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도 인간은 노동하는 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노동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고대 근동세계에서 이 문제는 다음 질문과 관계가 있다: 왜 사람은 일해야 할까? 나아가 이것은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이어진다: 왜 인간이 창조되었을까? 이에 대해 설형문자로 기록된 본문들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인간은 일하기위해서만 창조되었는데, 즉 신들을 어려운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다.¹³ 이와 관련하여 해밀턴(Victor P. Hamilton)이 메소포타미아의 신화 자료들 중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 이 시의 첫 두 낱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할 때”라는 뜻)와 아트라하시스(*Atrahasis Epic*)의 두

르소나(persona)라는 어원을 가진 인격(personality)이라는 개념인데, 가면이 연극에서 하는 역할과 같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인격 개념은 학문 분야만큼이나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개별자의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인격은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가리킨다.

13 G. Pettinato, 윌글, 21f. 에이드리엔 메이어, 「신과 로봇」 (안인회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20), 224, 250. 월계는 Adrienne Mayor, *Gods and Robo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오직 한 명의 신만이 직업을 갖고 있다. 이 신은 힘든 육체노동을 할 뿐만 아니라 땀도 흘린다. 힘들게 노동하는 이 신은 금속가공과 공예기술, 발명의 대가인 헤파이토스다. 나아가 헤파이토스는 인간형태를 하고 특별한 능력을 지닌 놀라운 오토마타(automata/실물 같은 복제인간)를 만들었다고 한다.

문서를 살펴본 바 있다.¹⁴ 특히 인간 창조 및 노동과 관련하여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신들의 영웅 마르둑(Marduk)을 기리고 있는 에누마엘 리쉬에서 하늘과 땅은 마르둑의 적 티아맛(Tiamat)의 시신을 통해 만들어진 다. 그리고 승리의 신 마르둑의 집 바벨론을 건축하는데 동원된 신들이 노동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 이에 마르둑은 두 번째 창조 단계로서 인간창조를 통해 신들의 강제노역을 경감시키기로 한다. 그리고 자신의 적 킹구(Kingu)를 죽이고 그의 피를 사용하여 인간을 창조한다.’¹⁵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의 인간 창조 이야기도 이와 유사하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의 관개공사에 동원된 신들이 감독 엔릴(Enlil)에게 불평한다. 그러나 엔키(Enki)라는 신이 중재에 나서 중노동에 시달리던 신들의 불평에 공감을 표시하며 웨일라(Weila)라는 신을 죽인 다음 그의 피와 살을 흙과 섞어 인간을 창조하여 그 신들을 강제 노역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두 신화에서 보듯이 인간은 신들을 육체노동의 필연성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의도 하에 창조된 존재이다. 그 문맥에서 볼 때 인간은 종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왕이나 보통 사람으로 창조되지 않는다. 수메르(Sumer)와 악카드(Akkad)의 창조기사 또한 사람의 정체성이 신들 대신에 수행하는 일에 의하여 특징져진다. 그 신화들은 신들이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살았었던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그들의 삶은 전혀 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존재였었다.¹⁶ 이에 수메르 본문에 따르면 인간창조는 신들을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 실제로 신들 자신도 힘든 일에 종사하면서 고된 삶을 살고 있었다: “신들이 인간들이었을 때 그들은 절고를 겪어지었으며 광주리(강

14 빅터 해밀턴, 「오경개론」 (강성열, 박철현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40-45. 원제는 Victor P. Hamilton, *Handbook on the Pentateuch*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5).

15 Helmer Ringgren, *Die Religionen des Alten Ori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133.

16 G. Pettinato, *윳글*, 21f.

제노동)를 지고 다녔다.”¹⁷ 그래서 신들이 안식을 취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창조되어야만 했다.¹⁸ 악카드인과 수메르인은 공히 노동을 인간창조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인생은 질고가 가득한 노동과 고뇌 그 자체였다. 이처럼 여러 가지 메소포타미아 자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인간됨과 신들의 신 됨은 사람의 자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인간과 신이 갖고 있는 각각의 기능에 달려있다. 그 핵심적인 위치에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 중앙집권체제의 고대 이집트¹⁹도 고왕국에서 중왕국으로 점점 시대가 흐르면서 노동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으로 변해갔으며, 헬라세계²⁰의 노동관은 사회전체가 노예제도에 깊이 뿌리박고 있기에 노동에 대한 평가는 근본적으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때 고대 세계의 인간이 수행하는 노동은 일방적으로 타자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이 고대세계의 노동문제는 ‘인간은 무엇이며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구체적으로 제기한다. 그러면 격의 문제는 인간의 인간됨, 즉 정체성의 핵심요소인데 과연 종속적인 노동을 위해 창조된 인간은 어떤 정체성을 지녔을까? 그들은 자신의 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여러 신화에서 보듯이 인간은 신들의 도구로서의 정체성을

17 W. v. Soden, *Bibel und Alter Orient*, Altorientalische Beiträge zum Alten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85), 206.

18 Helmer Ringgren, 윗글, 83-84.

19 윤 형, “노동의 기원”, 『Canon & Culture』 6집 (2012년 4월), 3-4. 참고, A. Eggebrecht u. a., *Geschichte der Arbeit. Vom Alten Ägypten bis zur Gegenwart* (Köln: Kiepenheuer & Witsch, 1980), 43.

20 윗글, 4-6. 그러나 부정적인 노동관에 반하여 고대의 헤시오드는 노동을 명예스럽고 신에게 칭찬받을만한 일, 즉 부유의 원천으로 찬양하였다. 자신의 ‘일과 날들(Werken und Tagen)’라는 작품에서 그는 성실한 노동의 의미를 강조한다: “노동은 아무런 부끄럼을 일으키지 않는 반면, 노동을 회피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Hesiod, *Werke und Tage*, in: *Sämtliche Werke(Theogonie. Werk und Tage. Der Schild des Herakles)*, (Leipzig: Dieterich, 1938), 303-313. 참고, F. Hauck, Art. *Arbeit*, in: RAC Bd. I, T. Klausner(Hg.), (Stuttgart: Hiersemann 1950), 586.

지니고 태어난다. 즉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 주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만을 위해 존재할 따름이다. 따라서 그는 인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노동용 기계에 불과할 따름이다. 수탈적 성격의 인간 노동은 그동안 신들이 해왔던 힘든 노동 부담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신들의 생계 및 수탈까지 책임진다. 이를 통해 바빌로니아 종교전통에서는 인간과 신들 사이에 불가분의 의존적인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¹ 신들 입장에서 인간이 꼭 필요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수고해서 일한 결과로 얻은 음식료로 그들의 수탈을 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굶던지 아니면 신들 스스로 일해서 자신들의 생계를 해결해야 했었기 때문이다. 결국 사람의 존재 목적은 신들의 삶을 책임지는데 있었다. 따라서 사람이 하는 노동은 자신에게 즐거움 및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그러면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할까?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가 고대 인간이 수행했던 노동을 노예적인 노동이라고 칭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조되는 과정에서도 나름대로 있어야 할 존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세계관 속에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인격의 근원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마지막으로 모방과 관련하여 인간은 자기 행동의 모델인 창조 주체의 외모 및 성격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고대 세계의 인간은 자연스럽게 신들의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 우선 겉모습의 모방이 있을 텐데 관련 본문들에 따르면 신들의 모습을 따라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²² 하지만 힘든 노동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신과 인간의 경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에누마엘리쉬에 따르면 인간 창조는 마르둑과 킩구

21 Helmer Ringren, *윳글*, 133-134. G. Pettinato, *윳글*, 17-47.

22 G. Pettinato, *윳글*, 43-44.

간에 벌어진 신들의 전쟁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리고 아트라하시스에 따르면 인간은 반란 주동자로 추정되는 웨일라라는 신의 시신으로 만들어진 다. 이로 볼 때 문맥상 인간은 신들의 형상 및 모양을 본 딴 것으로 보인다.²³ 나아가 인간을 창조하는 동기가 신들 사이의 질투 및 싸움이라는 것 또한 인간의 성격 모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제 인간 사회에서도 신들을 모방(mimesis)한 세계가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비극에 관해 말하기를 보다 높은 상태에서 보다 낮은 상태로 떨어지는 인간의 ‘행동의 모방’이라고 강조했다,²⁴ 이를 증명하듯이 고대 세계의 인간은 자신들을 창조한 신들의 행동을 모방하였다. 인간계에서도 신들의 위치에 앉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들의 모습을 뒤따라 자기들이 하기 싫어하는 노동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하였다. 고대 세계의 대부분의 노예 사회가 이런 형태를 갖고 있다.²⁵ 이런 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세상 속에서 온전한 인간상을 유지하기 어렵다. 결국 지배계층에 있는 신들은 일을 할 필요가 없고, 반면에 피지배계층의 인간은 그들을 위해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세계관을 모방하는 사람은 차별적 가치관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다. 결국 이 부문에서 인간의 모방은 신분 및 계급의 차별화가 그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난 노동자는 거의 일하는 기계와 같은 모습이다.

23 에이드리엔 메이어, 윗글, 186.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프로메테우스가 흙과 물(또는 눈물)을 섞어서 진흙으로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한다. 문현선, “중국 비한족(非漢族) 신화에 나타난 세계창조와 그 원리: 자연과 인간의 교용 관계를 중심으로”, 『도교문화연구』 50집 (2019년 5월), 144-145. 중국의 인간창조신화에서는 하늘과 땅을 의인화하고 인간 창조의 주체로 상정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의 창조신화 중에는 하늘 아버지(天公)와 땅 어머니(地母)라는 창조주체에 의해 행해지는 창조를 기술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김상기, “인간창조와 홍수”, 『신학연구』 50집 (2007년 6월), 19-20.

24 Britannica World Encyclopaedia 8, *mimesis*, (서울: 브리태니커, 동아일보, 2002), 282.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미메시스를 자연의 재현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예술 창작에 기본이 되는 이론적 원리로서 그리스어로 ‘모방’ (‘복제’라기보다는 ‘재현’의 뜻)이라는 뜻이다. 김현,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고양: 이와우, 2016), 130-137.

25 이세철, 『미래를 바꿀 인공지능 로봇』 (서울: 정보문화사, 2017), 199.

2) 현대 세계의 로봇

고대 세계에 이어 실제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 세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과거에도 로봇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으나 이것을 실제로 제작하지는 못했다. 유대인들에게도 1600년 경 ‘골렘(Golem/시 139:16/גֹּלֶם)’이라는 인조인간 이야기가 있었으나 전설속의 존재일 뿐이다.²⁶ 최근에 들어와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이 제기되었다. 왜 로봇을 만들게 되었는가? 다양한 종류의 로봇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사는 인간의 힘들고 어려운 노동을 대신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말하자면 로봇은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제작됨으로써 인간을 힘든 노동에서 해방시켜준다.²⁷ 이것은 마치 고대세계에서 인간이 신들의 힘든 노동을 넘겨받은 것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현대 로봇은 과학기술을 이용한 기계장치라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어쨌든 고대 인간이나 로봇은 모두 노동을 공통분모로 한다. 초기 단계의 로봇은 반복적인 단순노동을 대체하고 노동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작된 일종의 산업용 로봇이었다.²⁸ 그러다 점차 전문화된 자기 영역을 갖는 지능형 로봇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최근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대체 노동력으로 다양하게 개발하는 로봇들이 이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지능형 로봇은 실제 상황들을 고려하여 입력한 코드 및 프로그램에 따라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인간과 즉각적인 상호교류를 할 수 있

26 Jürgen. Ebach, *Noah Die Geschichte eines Überlebenden* (Leipzig: EVA, 2001), 62. 17세기 프라하의 유대인 게토(ghetto)의 전설에 따르면, 이것은 람비 뢰브가 진흙으로 모양을 빚은 후 카발라로 생명을 불어넣어 만든 거인으로서 유대민중의 수호신으로 세워졌다. 하지만 이 골렘은 나중에 주인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여 자신의 창조주를 파괴하기에 이른다.

27 에이드리엔 메이어, 윌글, 254.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노예를 주인의 뜻을 수행하는 기계 또는 오토마타(automata/자의로 움직이는 것)에 견준다.

28 김종욱, 「휴머노이드 로봇」 (서울: 홍릉과학출판사, 2012), 2. 세계 최초의 산업용 로봇은 1961년 요셉 엔겔버거(Joseph Engelberger)가 개발하여 제너럴 모터(General Motors)사의 조립라인에 투입한 유니메이트(Unimate)이다. 이에 인간노동을 대체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로봇의 유형과 발전단계를 특징짓는 기준이 된다.

다. 이에 휴머노이드(humanoid) 로봇 분야는 미래 로봇 산업의 가장 대표적인 분야이다. 이 로봇은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거나 말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로봇들은 인간의 노동시장을 서서히 잠식해나갈 것이고,²⁹ 그러면서 사람은 노동의 소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인공지능³⁰과 자율주행차가 로봇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다. 나아가 이제 로봇의 사양을 끊임없이 개량하다가 향후 사람처럼 스스로 학습능력을 갖고 감정을 느끼는 로봇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들은 인간과 유사한 로봇을 만들려는 과학자의 욕구와 사회의 경제적인 요구, 그리고 로봇들 자체의 내부진화 과정이 맞물리면서 일종의 안드로이드 단계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른바 새로운 종의 탄생이다.

그렇다면 향후 고도의 알고리즘(algorithm)을 설치한 로봇은 자기 자신의 '격'을 지닐 수 있을까?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 로봇의 자율성과 연관된 존재론적 지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준인격체 또는 유사 인격체로서 로봇이 준자율성을 갖는다는 것이다.³¹ 결국 이 문제가 로봇윤리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쟁점이 된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의 목적과 자율성은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봇이 어떤 존재론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인간과 대등한 종의 지위를

29 이세철, 윌글, 12. 향후 인공지능 로봇기술이 중산층(가장 위험한 계층)의 일자리를 일부 대체하게 되면서 중산층이 축소되는 모래시계 형태의 계층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다.

30 구분권, 「로봇시대, 인간의 일」 (서울: 에크로스, 2020), 270. 인공지능은 기능과 정의에 따라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미리 정해진 특정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의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weak A.I.)이라 부르고, 사람과 같거나 사람을 능가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자의식을 갖춘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strong A.I.)이라고 부른다. 현재까지 선보인 인공지능은 전자에 속하지만, 학자들이 인류의 미래를 위협할 인간의 마지막 발명품이라면서 우려하는 까닭은 후자의 출현이 임박했다는 일단 신호 때문이다. 마틴 포드, 「로봇의 부상」 (이창희 옮김), (서울: 세종서적, 2016), 356. 원제는 Martin Ford, *Rise of Robots* (New York: Basic Books, 2016). 지능 폭발의 가속화로 말미암아 역사의 틀이 흔들릴 것이며 소위 싱귤래리티(singularity/특이점)라고 불리는 시대의 문이 열릴 것이다.

31 변순용, 송선영, 윌글, 66. 로봇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코드 및 프로그램으로 반영된 행위자의 지위와 능력을 갖게 된다.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로봇에게 (인)격을 부여한다는 것은 그것을 마치 사람처럼 간주하고 대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딥-러닝(deep-learning³²/인공지능학습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로봇보다 열등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³ 로봇 제작 기술의 발달에 따라 로봇이 인간의 선의지, 질적 행복 계산 능력, 덕과 품성, 공동체와의 유기적 책임 판단 능력, 정서교류의 능력을 갖게 된다면 로봇은 인간과 매우 유사한 사고와 활동을 하게 된다.

일단 지능형 로봇의 모방(mimesis) 대상은 인간이다. 그것을 만들 때 불가불 인간으로부터 영감을 얻게 되는데, 특히 지각, 행동 그리고 인지 분야이다. 초기 로봇은 인간의 모습을 지니지 않지만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인간과 흡사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이른바 로보 사피엔스(Robo sapiens)³⁴의 등장이다. 이제 문제는 자유와 책임 문제로 넘어간다.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선천적인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간이 마찬가지로 로봇에게도 자유의지를 허락할 수 있을까? 따라서 여기서는 로봇에 대한 자유의지의 코딩이 핵심 쟁점이다.³⁵ 즉 로봇에게 작인(作因), 즉 행동이 따르는 의사결정권을 줄 수 있는느냐이다.³⁶ 이럴 경우 로봇의 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로봇과 인간

32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것은 분류를 통한 예측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인공지능의 특기는 많은 정보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최적의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다.

33 구본권, 윗글, 181. 알파고 충격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용자들은 인공지능의 착점 결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다. 알파고도 바둑돌의 착점과 행보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없었고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누구도 알파고가 돌을 놓은 이유를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알파고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이것은 딥-러닝에 의한 인공지능의 작동과정에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블랙박스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즉 인공지능이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이렇게 작동하는지 인간이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34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에 빗대어 부르는 낱말로써 생체 시스템에서 인간의 지능을 다운로드하거나 인간의 신경 생물학적 인공지능을 복제하여 만든 미래의 인간 종을 가리킨다.

35 라파엘 카푸로/미카엘 나겐보르그, 「로봇윤리」(변순용·송선영 역), (서울: 어문학사, 2013), 184. 원제는 Rafael Capurro/Michael Nagenborg, *Ethics and Robotics* (Heidelberg: Akalu.a.), 2009).

36 일라 레자 누르바흐시, 「로봇이 온다」(유영훈 옮김), (서울: 레디셋고, 2017), 120. 원제는 Illa Reza Nourbakhsh, *Robot Futures*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15).

의 상호관계를 설정해야 한다.³⁷ 이른바 로봇 제어 기술이다. 결국 로봇의 판단을 좌지우지하게 될 핵심요소의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데 과연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에 로봇 윤리가 필요한데 크게 인간, 로봇, 그리고 인간과 로봇의 상호관계,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³⁸ 로봇 개발의 문제성은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을 완벽하게 모방할 수 있는 로봇의 고급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머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 놓이게 되는바 선악을 분별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³⁹ 이 부문에서 미래의 로봇은 거의 인간에 버금가는 존재이다.

3) 구약 성서의 인간

우리는 앞에서 인간 창조 및 노동의 문화사적인 고대 기원과 현대 세계에서의 로봇 제작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밖에 인간 창조와 노동에 대한 다른 기원인 구약 성서 이야기가 있는데 주제와 관련하여 창세기 1장 26-28절을

37 이것은 로봇 공학 3원칙에 관한 것으로서 1950년 아시모프(I. Asimov)가 인간을 지배하는 로봇이라는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개념으로서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협에 처해있는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둘째, 첫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셋째, 첫째 원칙과 둘째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만 한다. 여기에 한 가지가 추가되는데, 로봇은 인류에게 해를 입히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류가 해를 입도록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석규, 도용태, 박창용, 이재원 공저, 「로봇공학의 이해」(고양: 사이텍미디어, 2013), 3. 아네스 기요/장아르카디 메이에르,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이수지 옮김), 『인간과 똑같은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서울: 민음in, 2006), 63. 원제는 Agnes Guillot/Jean-Arcady Meyer, *Des robots doués de vie?* (Paris: Le Pommier, 2004). Paul, O' Hara, "Do Robots Think Like We Do?", *Sophia: Ricerche su i Fondamenti e la Correlazione dei Saperi*, (2018), 44, 55. 오히라는 로봇이 결코 인간처럼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8 이석규, 도용태, 박창용, 이재원, 윗글, 379. 첫째, 로봇의 사용자로서 사람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 둘째, 로봇이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 셋째, 로봇과 인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규범이다.

39 구분권, 윗글, 321-322. 라파엘 카푸로/미카엘 나겐보르그, 윗글, 303. 로봇이 '선-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특히 정보 공유를 통한 인간과 로봇 사이의 신뢰적 소통이 중요하다.

살펴보고자 한다: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본문 또한 왜 인간이 창조되었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매우 포괄적이다. 물론 협의적으로는 여기서도 다스림이라는 노동이 인간 창조의 원인이지만 그 범위와 의도가 특이하다. 이제 6일차에 이르러 먼저 짐승이 창조되고(24-25절), 이어서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다스림이다. 즉 앞서 하나님이 창조한 거의 모든 피조물(다만 빛과 하늘 그리고 하늘의 광명체는 제외)에 대한 다스림의 권리를 인간에게 이양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이란 개념을 훨씬 초월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인간 창조설화에서 발견하는 노동 행위와도 확연히 구분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관리하게끔 부름 받았다.⁴⁰ 그로부터 사람의 모든 일(노동)이 파생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따라서 인간

40 G. von Rad, *Das Erste Buch Mos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39

의 노동신학 역시 이에 근거한다. 하지만 이 다스림이라는 노동의 부여는 하나님이 부담해야만 했던 강제노역의 일방적인 전기는 아니다.

이로써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에게는 특별한 역할이 맡겨졌다. 이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란 개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편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참여하면서, 그의 명령의 수탁자로서 다른 모든 피조물 위에 두드러진다. 즉 정치적인 기능으로서 세상에 대한 인간의 주권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 근거한다.⁴¹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차이 또한 분명하다. 즉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그는 피조물일 따름이다. 어쨌든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노동과제는 신성함을 지니고 있다.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의 관리 책임을 맡은 것이다. 이제 창세기 2장에 들어가 인간의 노동은 창세기 1장의 문화명령보다 더 구체화되는데, 즉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다(창 2:15).⁴² 무엇보다 하나님은 창조 당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그에 대한 과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경작하는 존재라는 것이다(창 2:5). 하나님이 친히 지은 인간을 위해 동산을 창설하고 그를 그 곳으로 인도할 때도 그 의도는 매우 긍정적이었다(창 2:8, 15).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노동이라는 과제를 주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의 산물이 아니었다. 알다시피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된 것은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사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⁴³ 하여튼 구약성서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노동은

41 배회숙, “하나님의 형상과 땅의 통치(창 1:26-28)-인간의 본질과 과제에 대한 새 관점”, 「장신논단」 49-2호 (2017년 6월), 67.

42 물론 창세기 2장 15절이 노동과 관련된 적극적인 본문이긴 하지만, 사람의 노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8절, 2장 7절, 15절과 3장 17-19절, 4장 11-12절 그리고 5장 29절 등, 노동의 기원과 전개 상황에 이르기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윤형, “노동의 기원”, 69-95.

43 윤형, 앞글, 83.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며 양식을 허락한 다음 ‘심히 좋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일할 에덴동산이 창설되는데(창 2:8) 그 에덴(עֵדֶן)은 즐거움을 의미한다. 그런 다음 창세기 2장 15절에서 사람을 에덴에 ‘둔다’고 하는데 그 동사는 안식과 관련된 동사

우리가 통상 갖고 있는 부정적인 노동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성서에 따르면 인간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은 그 밑바탕에 신성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이런 신성성을 바탕으로 사람의 노동이 그 존엄성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동자로서 하늘에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창조 과정에서 보듯이 그는 실제로 활동하는 존재라는 점에 근거한다.⁴⁴

한편 사람은 자신의 인격(person)의 기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이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이 부분이 희미하면 인간이 진정한 자존감을 갖기 어렵다. 이에 대해 고대 근동의 인간 창조 설화에서는 사람의 인격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노동을 하기 위한 도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구태여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 필요가 없다. 다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수행하면 된다. 현대 세계의 지능형 로봇도 당연히 자신의 격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반해 구약성서에 따르면 인간의 인격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했다는 전제에 근거한다. 여기서 אָדָם(아담/사람)이라는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의미가 있다.⁴⁵ 성서에서는 세상이 시작될 때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본래 하나님(신)의 형상이란 고대 중근동과 이집트에서는 권위의 상징이며 왕의 칭호를 가리킨다.⁴⁶ 그러니 일반 사람을 감히 신의 형상

(אָדָם/누아흐)이다. 따라서 정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3장 이전의 노동은 본질적으로 긍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이에 아담의 노동은 수고로운 노동이 되며, 이런 어려움에 대해 창세기 5장 29절에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당시 사람들이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 결과 노동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주홍글씨처럼 새겨지게 되었다.

44 윤형,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대한 재고찰”, 『구약논단』 50집 (2013년 12월), 117-143.

45 Janghoon Park, “Bensira’s Use of the Adam Story in Gen 1-3”, 『구약논단』 77집 (2020년 9월), 205-206.

46 J. Schabert, *Genesis 1-11* (Würzburg: Echter-Verl., 1983), 45. Helmer Ringgren, *유태교*, 46, 51. 이집트 종교에서는 사람으로서의 개인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다.

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이에 사람들은 본문에 왕권 개념이 내포되어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서는 이것을 일반화시켰는데, 즉 왕에게만 귀속되었던 세상 통치권을 사람(아담)에게 귀속시켰다는 것이다. 이것이 항상 왕권과 연결되어있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창조 전통과의 근본적인 차이다.⁴⁷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은 인격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⁴⁸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אִבְדָּם/첼렘/image)과 모양(תְּמוּנָה/드무트//form, shape, likeness)을 따라 창조되었다. 형상이란 낱말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상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 모양이란 낱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양태(...와 같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⁴⁹ 이렇게 사람은 바로 앞서 창조된 짐승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피조물이다. 짐승을 창조할 때는 그 모델로 무엇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만 하나님이 각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말한다.⁵⁰ 그러니까 짐승은 자기 자신을 반추하거나 인식하는 격을 지닐 수

47 U. Rütterswörden, *Dominium Terrae* (Berlin: de Gruyter, 1993), 127.

48 진교훈 외, *읽글*, 400.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영원법과 인간의 이성이 따르는 자연 법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 존엄성의 근거를 찾고 있다.

49 이은우, “창세기 1:1-2:4a의 수사적 구조에 나타난 생태윤리”,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18. J. Alberto Soggin, *Das Buch Genesis: Kommentar* [Aus dem Ital. übers. von Thomas Frauenlob...]. (Darmstadt: Wiss. Buchges., 1997), 44. 소긴(J. Alberto Soggin)은 *imago Dei*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복사본과 원본의 관계와 같다’고 에둘러 해석 한다. 참고, 유연희, “창세기 1-3장을 퀴어링하기”, 『구약논단』 78집 (2020년 12월), 198-200. 필자는 퀴어비평(queer reading)에 따라 형상(첼렘)과 모습(드무트)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50 짐승을 창조할 때에는 단순히 만들다(אָסַף/to make)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이에 대해 사람을 창조할 경우, 우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사 동사를(창 1:26), 그리고 실제로 사람을 창조할 경우(창 1:27)에는 바라(창조하다/to create) 동사를 사용한다. 이와 아울러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할 경우에는 그 원료로 땅의 먼지(אֲפָרָה/아파르)로 사용하는(창 2:7) 반면에, 짐승에 대해서는 흙(אֲדָמָה/아다마)을 사용하는 것(창 2:19)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과 짐승의 창조에 사용되는 동사 및 원료가 다르다는 사실은 그만큼 인간의 위치가 다른 피조물에 비해 특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창세기 2장 19절에서 짐승을 지을 때 사용하는 야차르(יָצָר) 동사에서는 정상적인 와우 연속 미완료 형태로 나오는데, 이에 대해 2장 7절에서 사람을 지을 때는 요드(י)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 또한 사람 창조의 독특함을 강조하고 있다.

없다. 인간 창조의 독특한 점은 본문에 사용된 낱말(동사)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것과 관련하여 26절과 27절에 사용된 동사가 각기 다른데, 전자에서는 **הָצַפּ**(아사/만들다)고 후자에서는 **בָּרָא**(바라/창조하다)이다. 무엇보다 바라 동사는 27절에서 세 번씩이나 사용된다. 통상 아사 동사는 작업 행위를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일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바라동사는 아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⁵¹ 그러면 인간 창조의 이런 특별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본질의 기원을 따로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을 모르면 사람의 인격은 사상누각과 같은 건물이 된다. 자존감의 근원을 모르는데 그가 어떻게 올바른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구약성서에서는 인간의 격의 기원을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이렇게 노동과 마찬가지로 성서에서는 인간의 격 또한 본질적으로 신성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아를 인식하면서 노동하는 인간은 자신의 일을 수행할 때 누구를 모방(mimesis)할 것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 따 만들어진 존재이다. 따라서 피조물인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위를 본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질서적인 창조행위를 대변하는데, 따라서 인간에게 부여된 주권적 행위도 그와 같이 질서 있는 관리에 근거해야 한다.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제시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즉 짐승을 복종시키고 땅을 정복해야 한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이 두 히브리어 낱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달려있다. 우선 카바쉬(**כַּבַּשׁ**) 동사는 생활공간의 점령 또는 노예적 노동 개념과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해 뢰터스뵤르덴(U. Rüterswörden)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듯이 두 동사의 순서는 논리적인데, 우선 중요한 것은 삶의 공간의 정복이며 그다

51 C. Westermann, *위글*, 120-121.

음에는 생물의 지배이다.”⁵²라고 주장한다. 이어 나오는 라다(777) 동사가 지배개념과 관련된다: “라다는 노동과 부역을 강요하는 폭력이 내포된 명령인데, 그것은 때로 벌주기도 하고 강한 힘을 사용할 수 있다.”⁵³ 그 어원은 바로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여기에도 폭력적인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낱말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도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코흐(K. Koch)는 관련 구절(겔 34:4; 시 49:15)을 분석하고 이 낱말이 ‘무엇을 인도한다’는 다른 의미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구절들에 따르면 낱말 선택에 있어 창세기 1장은 자신의 동물들을 몰고 다니며 풀을 뜯기고 인도하는 것과 관련된 일반적인 표현과 잘 어울린다.”⁵⁴ 또한 마리문서에 따르면 동사 ‘라다’는 목자가 자신의 작은 가축 떼를 돌보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며 또 책임감 있고 사려 깊은 행위를 함축하고 있다.⁵⁵ 이 동사의 해석과 관련하여 두 곳(겔 34:4; 창 1:28)을 비교하고 내놓은 에바흐(J. Ebach)의 견해도 흥미롭다: “에스겔서에서 목자와 가축 사이의 좋지 않은 관계를 나타내는 이 동사가, 창세기 본문에서는 사람의 일로서 동물세계에 대한 올바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⁶ 물론 두 가지 경우 각기 초래된 결과는 아주 다르다. 즉 목자와 그에게 맡겨진 가축 떼에 대한 관계(에스겔서 본문 배후에는 왕과 백성이라는 관계가 있음)에서 중요한 것은 지배권적인 압박이 아니라 사려 깊은 관리라는 것이다. 강사문 또한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인간-자연의 상호관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⁷ 이처럼 사람은 외양적인 모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과제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숙고하고 모방해야

52 U. Rütterswörden, *Dominium Terrae* (Berlin: de Gruyter, 1993), 103.

53 B. Jacob, *Das Buch Genesis*, 59.

54 K. Koch, *Spuren des hebräischen Denkens*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1), 233.

55 S. Matthias, Art.; *Dominium Terrae*, in; Wikipedia, 2008.

56 J. Ebach, *읽기*, 282, Anm. 5.

57 강사문, “구약성경의 자연이해”, 「장신논단」 18집 (2002년 12월), 60-61.

한다.

과제를 질서 있게 수행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가장 중요한 모방 행위를 갖게 된다.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의 결과인데,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창조행위를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신의 역사에 참여시켰다는 점에 그 근거를 갖고 있다. 또한 그 자유는 앞서 언급한 인간의 격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는 근본적인 토대이다. 이에 대해 바르트(K. Barth)는 하나님과 사람의 자유를 ‘나’와 ‘너’라는 관계로 규정한다: “이것은 바로 창조자로서 인간에 대하여 자유로운 하나님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다.”⁵⁸ 하지만 사람의 자유는 하나님의 위탁 명령과 그에 대한 질서 있는 수행 및 관리와 연관되어있다. 바르트처럼 본회퍼(D. Bonhoeffer)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자유와 연결시킨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땅위에 자신의 형상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그 사람이 창조자와 버금가며 또 그가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⁹ 그러므로 자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세계 경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전전제이다. 따라서 이 자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방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부문에서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나타난다.

58 K. Barth, KD III 1, *Die Lehre von der Schöpfung* (Zürich: EVZ-Verl., 1970⁴), 220.

59 D. Bonhoeffer, *Schöpfung und Fall* (München: Kaiser, 1989), 58.

4. 인간과 로봇에 대한 신학적 견해

앞에서 살펴본 결과 우리는 현대 세계의 지능형 로봇 제작 문제가 고대 세계 및 구약성서의 인간 창조와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선 그 세 부문의 공통분모는 노동이다. 그런데 그 노동에 대한 의미가 각 부문마다 서로 다르다. 로봇 제작과 고대 세계 관점에서는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었으며, 이에 반해 구약성서에서는 선악과 사건 이전까지 노동에 대한 의미가 긍정적이었다. 여기서 생각할 과제는 사람들이 정작 내려놓으려는 노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숙고하는 일이다. 비록 로봇에게 힘든 노동을 전가시키지만 사람이 수행해야 하는 노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은 단순히 삶을 영위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로봇에게 노동을 전적으로 일임한다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정체성을 부인하는 행위이므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당국은 노동의 효율성만 추구하기 보다는 사회 공동체 전체를 보면서 아날로그적인 노동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로봇에게 일임할 노동과 인간이 꼭 확보해야 할 노동에 대해 숙고해야한다. 그 다음에 살펴본 것은 격(person/identity)에 관한 것으로서 노동 주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로봇 제작 부문과 고대 세계에서는 각기 로봇과 인간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보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효율성 및 효용성이 중요하지 그들의 존재의미에 대해서는 별 상관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구약성서에서는 인간의 정체성의 기원을 하나님의 형상 및 모양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는 노동의 신성성과 노동을 수행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향후 지능형 완전체 로봇 제작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문제는 제작주체인 인간이 그에게 어떤 정체성을 부여할지 숙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논

문에서 살펴본 것은 모방에 관한 것이다. 고대 세계에서 일반 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그를 창조한 신들의 사고 및 성향을 모방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상급 신과 하급 신을 구별하는 세계관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 또한 그런 차별적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세계관 및 가치관을 모방한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그 사회는 차별적인 사고가 만연하게 된다. 이제 당면 과제인 로봇의 모방 대상은 우선 인간이 되는데 과연 그 사람이 모방의 표준 또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로봇에게는 다양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의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해야 하는데 여기서 그 작업을 진행할 프로그래머의 인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은 과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의지를 로봇에게도 부여할 수 있는지 그것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종합해보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강)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종의 로봇 창조 또한 선악과 사건(창 2:3장)에서 보듯이 인간의 선택과 책임에 달려 있다.

5. 결론

언젠가 우리가 완전체 로봇과 생활하는 시간이 올 것이다.⁶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인간은 로봇에게 명령을 내리기만 하고 상당부분의 일을 내려 놓을 수도 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바랐던 유토피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 때는 로봇에 대한 사람의 인식도 많이 변해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에 대한 본질, 인격 및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계속 될 것이

60 Illa Reza Nourbakhsh, 윗글, 148. 학자들에 따르면 2050년경에는 인간의 신체적 능력에 근접한 로봇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한다.

다. 그럴 경우 바람직한 가치관 및 기준이 없다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현대, 고대 그리고 구약성서를 중심으로 논쟁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일 중요한 요소인 노동에 대한 의미 부여와 노동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모든 노동행위가 모방행위라고 볼 수 있듯이 누구를 모방하는가에 따라 세상과 사람을 보는 가치관도 달라질 수 있다. 어쨌든 성서에서는 인간과 노동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 노동의 신성성과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자유와 질서라는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종 로봇을 창조할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우리의 과제이다.

참고 문헌

- 강사문, “구약성경의 자연이해”, 「장신논단」 18집 (2002년 12월), 55-75.
- 구본권, 「로봇시대, 인간의 일」 (서울: 어크로스, 2020).
- 김동환, “테크놀로지 시대의 인간에 대한 신학적 비평”, 「Canon & Culture」 10집 (2016년 10월), 91-126.
- 라이언 아벳트, 「노동의 미래」 (안진환 옮김), (서울: 민음사, 2018). 원제 Avent, Ryan, *The Wealth of Humans* (New York: St. Martin's Press: 2016).
- 변순용, 송선영, 「로봇윤리란 무엇인가?」 (서울: 어문학사, 2015).
- 배희숙, “하나님의 형상과 땅의 통치(창 1:26-28): 인간의 본질과 과제에 대한 새 관점”, 「장신논단」 49-2호 (2017년 6월), 61-83.
- 빅터 해밀턴, 「오경개론」 (강성열, 박철현 역), (고양: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7), 40-45. 원제 Hamilton, Victor P., *Handbook on the Pentateuch*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2005).
- 에이드리언 메이어, 「신과 로봇」 (안인희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20). 원제 Mayor,

www.kci.go.kr

- Adrienne, *Gods and Robot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8).
- 유연희, “창세기 1-3장을 퀴어링하기”, 「구약논단」 78집 (2020년 12월), 198-200.
- 윤형, “노동의 기원”, 「Canon & Culture」 6집 (2012년 4월), 188-218.
- 이석규, 도용태, 박창용, 이재원 공저, 「로봇공학의 이해」 (교양: 사이텍미디어, 2013).
- 이세철, 「미래를 바꿀 인공지능 로봇」 (서울: 정보문화사, 2017).
- 이은우, “창세기 1:1-2:4a의 수사적 구조에 나타난 생태윤리”, 「구약논단」 44집 (2012년 6월), 10-34.
- 일라 레자 누르바흐시, 「로봇이 온다」 (유영훈 옮김), (서울: 레디셋고, 2017). 원제 Nourbakhsh, Illa Reza, *Robot Futures* (Massachusetts: The MIT Press, 2015).
- 진교훈 외, 「인격」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격의 의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 최진, “인공지능(AI)과 *imago Dei* 안의 의식과 지향성”, 「Canon & Culture」 10집 (2016년 10월), 69-90.
- 카렐 차페크, 「로숨의 유니버설 로봇(R.U.R.)」 (김희숙 옮김), (서울: 모비딕, 2015). 원제 Capek, Karel, *Rossum's universal robots* (Prague: Aventinum, 1920).
- Barth, K., *Die Lehre von der Schöpfung* KD III 1 (Zürich: EVZ-Verl., 1970⁴).
- Bonhoeffer, D., *Schöpfung und Fall* (München: Kaiser, 1989).
- Britannica World Encyclopaedia 8., *mimesis* (서울: 브리태니커, 동아일보, 2002).
- Ebach, J., *Noah Die Geschichte eines Überlebenden* (Leipzig: EVA, 2001).
- Ebach, J., *Wententstehung und Kulturentwicklung bei Philo von Byblos* BWANYT 108 (Stuttgart: Kohlhammer, 1979).
- Jacob, B., *Das Buch Genesis* (Stuttgart: Calwer Verlag, 1934).
- Janghoon Park, “Bensira’s Use of the Adam Story in Gen 1-3”, 「구약논단」 77집 (2020년 9월), 202-227.
- O’ Hara, Paul, “Do Robots Think Like We Do?”, *Sophia: Ricerche su i Fondamenti e la Correlazione dei Saperi*, (2018), 43-55.
- Pettinato, G., *Das altorientalische Menschenbild und die sumerischen und akkadischen Schöpfungsmythen* (Heidelberg: Carl Winter, 1971).

- Ringgren, Helmer, *Die Religionen des Alten Orient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9).
- Schabert, J., *Genesis 1-11* (Würzburg: Echter-Verl., 1983).
- Soggin, J. Alberto, *Das Buch Genesis: Kommentar* [Aus dem Ital. übers. von Thomas Frauenlob...] (Darmstadt: Wiss. Buchges., 1997).
- Von Soden, W., *Bibel und Alter Orient*. Altorientalische Beiträge zum Alten Testament (Berlin: de Gruyter, 1985).
- Von Rad, G., *Das erste Buch Mose Genesi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6).
- Westermann, C., *Genesis BK I /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9).
- Westermann, C., *Arbeit und Kulturleistung in der Bibel*, in: Erträge der Forschung am Alten Testament (München: Kaiser, 1984).

검색어

창조

로봇

노동

인간

모방

Creation of Human Being and Robot in Theological Aspect

Hyung You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article is a theological study of robots with a canonical approach, concerned with work of human beings. Three categories of ancient and modern world, through the Old Testament, are arrang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human and robots. The three themes are work, 'person,' and mimesis. The production of intelligent robots is similar to the creation of human beings in ancient world and Old Testament. A common point of three parts is work; however, its meaning is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cases of robots and ancient world its image is clearly negative; on the contrary, its meaning is positive from the beginning of creation in the canonical Bible. Secondly, it analyzes the identity of the worker. Parts of robots and ancient world regard

www.kci.go.kr

human as an object devoid of personality. However, in the Old Testament, the origin of humankind goes back to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The third factor is mimesis(imitation). One who was created only to work in ancient world imitates the nature of gods. The model for the imitation of robots is a human being. Could a human being be a subject of imitation? Lastly, a theological opinion about human and robot is explored. It is important to reconceive the meaning of work and the identity of worker. Human values are subject to change according to the model of imitation. In conclusion, the Bible uniquely emphasizes a very close correlation between human and work, the divineness of work, the dignity of human beings, as well as freedom and order. It is then our task, as to how they are to be applied to robots as new species.

Keywords

Creation

Robot

Work

Human Being

Mimesis

- 투고일: 2022년 3월 30일
- 심사일: 2022년 4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22년 5월 19일

www.kci.go.kr